

‘주출관’ 현판이 걸린 반대편 ‘영남제1관’ 쪽에서 바라본 제1관문의 야경. 달빛과 불빛이 성곽을 신비롭게 비추고 있다.



■ 국방저널 ‘성곽순례’
- 경북 문경새재

청운의 뜻 품고 걸었던 과거길... 옛 선비 발자취 따라 시간여행

국방저널은 5월호 기획기사 ‘성곽순례’에서 조선시대 영남과 한양을 잇는 제1대로였던 영남대로에 있는 문경새재를 찾았다. 왜군을 막기 위한 전쟁 대비시설이자 조선 선비들의 과거 길이었던 문경새재 곳곳을 담은 기사를 요약, 소개한다. 전문은 인터넷 홈페이지 ‘국방저널’ 코너에서 e북으로 만날 수 있다.

총 길이 10km...교통의 요지·군사상 요충지

장원급제를 바라던 선비들과 부자를 꿈꾸던 보부상들이 지나던 옛 고갯길, 문경새재는 빼어난 자연경관과 함께 다양한 설화와 민요가 얽힌 곳으로도 유명하다. 새재라는 이름은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라는 뜻으로 붙여졌다는 설도 있고, ‘역새가 우거진 고개’라는 뜻에서 유래했다고도 한다. 하지만 ‘새로 난 고갯길’이라는 지리학자들의 주장이 가장 설득력 있다. 지금은 이화령에서 수안보로 통하는 국도가 뚫린 후 사적지로 바뀐 이곳에는 세 개의 관문인 조령산성이 설치돼 있다.

총 길이가 약 10km에 달하는 문경새재에서 제1관문부터 제3관문까지는 총 6.5km다. 영남대로에 있는 교통의 요지였으며, 험한 지세를 이용했던 군사상의 요충지이기도 했다.

제1관문 주출관과 천년 고찰 해국사

제일 남쪽의 1관문은 ‘주출관(主屹關)’ 또는 ‘영남 제1관(嶺南 第1關)’이라고 불린다. 왜군에 대비해 1708년(숙종 34년) 만들어졌다. 이곳엔 무지개 모양의 흥예문 위로 문루가 있다. 오른쪽으로는 수문이 있는데 길게 앞으로 뻗어 나와 왼편 계곡으로 물길이 흐른다. 1관문 앞은 상당히 넓은 광장인데 ‘문경새재 과거길’이라는 표지석을 바라보며 왼편으로는 계곡 암봉까지, 오른쪽으로는 주출산 쪽으로 성곽이 이어진다. 특히 이곳은 길을 따라 조명이 설치돼 야경이 멋지다. 성곽 뒤로는 KBS 촬영장이 보이는데, 이곳은 별장영·산장·병영·무기고 등이 있던 자리다. 입장료를 받지만 조선시대 모습을 축소해 재현,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반대편으로는 경북 100주년을 기념하는 타임캡슐광장을 조성해 볼거리를 제공한다.



문경새재 제2관문인 ‘조곡관’이 계곡에 놓인 다리인 조곡교 뒤로 보인다. 1관문과 2관문 사이에 있어 중성이라고도 불린다.



문경새재의 제3관문인 ‘조령관’. ‘장원급제’의 부른 꿈을 안고 한양으로 올라가거나 과거를 보고 고향으로 내려가던 사람들의 애환이 서린 곳이다.



조선시대 관리들의 숙박시설인 ‘조령원터’. 지금은 옛 건물과 함께 각종 지게 및 수레 등이 마당에 있다.

이곳을 지나다 오른쪽으로 숲 속 길이 나오는데 1시간 정도 오르다 보면 천년 고찰 해국사를 만날 수 있다. 신라 846년(문성왕 8년) 보조제징(普照體澄·804~880) 스님이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해국사의 원래 이름은 법흥사(法興寺)였다. 고려 말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해 이 절에 피신한 뒤 노고를 치하해 재물을 주자 국왕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해국사로 바꿨다고 한다.

제2관문 조곡관과 조령원터·교귀정

둘째 관문을 향해 걷다 보면 길 바로 옆으로 ‘조령원터’가 눈에 들어온다. “고려와 조선조 공용으로 출장하는 관리들에게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시설”이라는 설명이 있는 이 숙박시설은 특이하게도 두꺼운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돌담은 너비 2.8~3m, 높이가 2.9m로 상당히 높아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다. 남북으로 약간 긴 장방형의 조령원터에는 건물터 4곳이 남아있다. 지금은 옛 주막 형태의 건물이 들어서 각종 지게와 수레, 향아리 등이 마당을 채우고 있다.

조령원터를 지나면 교귀정이 보인다. 새로 부임해 오는 경감삼사가 전임자와 업무를 인수계하던, 일종의 이·취임식 장소다. 1470년경(성종 초) 처음 세워졌는데 1896년 의병전쟁 때 화재로 소실됐다가 1999년 복원했다. 건물은 팔작지붕에 한옥 건립 기법인 이익공(二翼工) 양식이며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이뤄져 있다. 정자 이름인 ‘교귀’는 ‘거북 모양의 관인을 주고받는다’는 뜻으로 쓰인 이름이라고 한다.

길옆에 세워진 ‘조령 산불도심 표식’도 신기한 볼거리 중 하나다. 설치 시기는 확실치 않지만, 조선 후기로 추정하고 있다.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데, 국한문 혼용이 아닌 고어로 된 국내 유일의 한글 비석이다.

2관문은 계곡에 놓인 다리(조곡교)를 건너면 나온다. 2관문은 조곡관(鳥谷關)으로 임

진왜란이 일어난 후 신중원이 축성한 것이 시초가 됐다. 뜻말은 “1708년(숙종 34년) 조령산성을 쌓을 때 매바위 북쪽에 있던 신중원이 쌓은 옛 성을 고쳐 쌓고, 중성으로 삼아 관문을 조동문(鳥東門)이라고 이름 지었다”고 밝힌다. 1관문과 3관문 사이에 있어 중성(中城)이라고도 한다.

제3관문 조령관과 문경새재 과거길

중성을 지나 오르면 3관문으로 가기 전 문경새재 과거길(옛길)이 나온다. 이곳에는 문경초점인 낙동강 발원지가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돌무더기가 쌓여 있는 책바위가 보인다. 그 옛날 이곳을 지나던 이들 사이에는 ‘책바위 앞에서 소원을 빌면 장원급제를 한다’는 전설이 전해져 지금도 입시 철이면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 소원을 빈다고.

마지막 관문은 조령관(鳥嶺關)으로 새재 정상에 있다. 선조 때 공사를 시작해 숙종 때 중창한 3관문의 문루는 1907년 훼손됐다가 흥예문과 누각, 좌우의 석성 135m를 1976년 복원했다.

이밖에도 문경새재에는 일제강점기에 지원이 부족한 일본군이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송진을 채취한 자국이 남아있는 ‘상처 난 소나무’와 임진왜란 당시 왜적에 맞서 싸우다 순국한 신길원 현감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신길원 현감 충렬비’가 있다. 또 선정비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전쟁 후 평화가 이어지면서 문경에 부임했던 현감들도 이곳을 오고 갔다. 현감들이 떠나자 백성들이 선정비를 하나 둘 세워주면서 지금의 선정비군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많은 현감이 재임하는 동안 돈을 거둬 선정비를 세웠고 이에 주민들은 현감이 떠나자 한풀이로 선정비를 부숴냈다고 한다. 문경새재 교귀정 옆에도 선정비가 몇 개 있는데 한풀이를 피하려고 아예 바위에 글귀를 새겨 냈다.

글=조진섭·사진=이경원 기자

■ 편집=신연식 기자